

삼성바이오로직스, AI 역량강화로 의약품 생산 선제대응

김진한 신임 AI 연구실장 선임
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설립 인제
지난해엔 美 바이오 벤처기업 투자
개발·생산 디지털 역량 강화 전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공지능(AI)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진한 상무를 인공지능 연구실장(AI LAB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6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김진한 신임 인공지능 연구실장은 이달 1일부터 합류했다.

김진한 신임 인공지능 연구실장은 인공지능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응용생물화학,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에서는 각각 컴퓨터공학 석사와 인공지능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밖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AI 기반 신약 개발 스타트업인 스탠다임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탠다임은 유효물질 탐색, 선도물질 도출 및 최적화, 전임상 후보물질 구축 등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포괄하는 연구개발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 영입에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말에는 미국 바이오 벤처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도 투자한 바 있다.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은 생성형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크로마는

원하는 특성과 기능을 갖춘 드 노보 단백질질을 신속하게 설계해 준다. 드 노보 단백질은 기존에 존재하는 단백질 서열이나 구조에서 유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약물접합체(ADC), 다중 항체 등 차세대 치료법을 갖춘 의약품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세계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행사인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도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파트너로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생산공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혀 왔다.

특히 올해 4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5공장의 경우, 항체 의약품 생산 용량은 총 78만4000L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화 공정 환경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생성되는 데이터를 한 데 모으는 데이터 호수(데이터 레이크), 생산관리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해 시설운영 효율성과 품질 강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객사가 실시간으로 공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국내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공정과 신약 파이프라인 등 연구개발 모두에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을 상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파트너사들이 차세대 모달리티에 집중하고 있는 속도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캐파 증량은 기본이고 공정 기술에서도 차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정관장, NPEW서 전 세계에 'K-건기식' 알린다

(세계 최대규모 천연식품 박람회)

베스트셀러 '에브리타임' 등 선봬
2000여명 시음... 높은 관심 보여
美 '아마존' 입정예정 신제품 공개

정관장이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현지시간으로 4일부터 7일까지 '2025 NPEW(Natural Products Expo West)'에 참가해 전세계에 K-헬스(Health)를 알렸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NPEW는 전세계 약 130개국 3000여 개의 식음료업체와 6만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식품 박람회로 전세계 천연식품, 건강기능식품, 뷰티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다. 정관장은 NPEW에 지속 참가하며 각국 소비자 및 바이어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정관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Find Your Energy, Find Your Flow(당신의 에너지를 찾으세요, 당신의 흐름을 찾으세요)'라는 테마로 정관장 대표 베스트셀러인 '에브리타임'을 비롯하여, 혈당조절 건기식 'GLPro(지엘프로)', 건강 에너지드링크 'HSW(홍삼원)' 등을



정관장 에브리타임 신제품 3종.

/KGC인삼공사

선보이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정관장 홍삼의 7대 기능성(면역력 증진, 혈행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건강, 혈당조절)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방문객들에게 정관장 제품으로 만든 눈알콜-헬시 컵테일을 제공하는 등 이색 이벤트도 마련하며 호평을 받았다. 행사기간 동안 메인부스에서만 2000여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에브리타임'을 시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관장은 야외광장에 액티비티 존을 설치하고, 태권도 송판 격파 시범, 에너

지펀치 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관장은 이번 박람회에서도 미국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에 입정 예정인 '에브리타임' 신제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에브리타임 퍼폼A', '에브리타임 파워폼', '에브리타임 칼로트림' 3종이다. 각각 운동 전 혈관확장, 운동 중 지구력과 스테미너 증진, 그리고 효과적인 칼로리 소모에 특화됐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이번 NPE

W 참가를 통해 정관장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정관장은 현지인 맞춤형 효능연구와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통해 세계 속의 K-헬스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인 KGC인삼공사는 글로벌 타피어 종합 건강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글로벌 마케팅 관점에서 '에브리타임', '활기력', 'HSW(홍삼원)'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코스트코·아마존 등 현지 유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나갔다. 뿐만 아니라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의 프리미엄 마켓체인인 '스프라우츠'와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 '웰시아' 등에 입점해 해외 고객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또한 R&D기술력을 기반으로 홍삼오일, 두충우슬추출복합물 등 신규 기능성 원료 및 건강 소재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가그린 '디스커버리 세트'

/동아제약

동아제약
"가그린 6가지 제품
한 번에 경험해요"

동아제약이 구강관리 브랜드 가그린에서 디스커버리 세트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가그린의 여섯 가지 제품을 한 데 담았다. 제로, 오리지널, 후레쉬 라임, 피치민트, 유자민트, 제로 블라스트 등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다.

동아제약은 이번 세트를 통해 가그린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그린 디스커버리 세트는 동아제약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이문온시아', 코스닥 상장 추진

예비심사 통과... 기업공개 절차 돌입

유한양행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에서 자회사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기업 이문온시아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문온시아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본격적인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한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은 통지 후 6개월로 규정되고 있어 이문온시아 기업공개는 올해 9월까지 마무

리될 전망이다. 이문온시아는 914만 482주를 공모할 예정이고 총 상장 예정 주식수는 7300주 4309주다. 상장주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문온시아는 코스닥 시장 진입에 거듭 도전해 왔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상장 추진을 한차례 미뤘다. 이후 2024년 4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획득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평가 기관 2곳으로부터 A, BBB등급을 받은

면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했다.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할 공모자금은 임상 개발 비용으로 투입하는 등 신규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문온시아는 2016년 9월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테라퓨틱스가 합작해 설립한 면역항암제 전문기업이다. 유한양행은 6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문온시아는 체내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와 대식세포를 표적하는 핵심 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초 면역관문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다. 모든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서 '계열 내 최고 신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핵심 파이프라

인으로는 IMC-001, IMC-002, IMC-003 등을 구축했다.

특히 IMC-001은 PD-L1 항체로, 암세포 표면의 'PD-L1'이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문온시아는 NK/T세포 림프종을 비롯한 희귀암을 적응증으로 IMC-001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물질은 기존 화학요법에 실패한 환자에서 객관적반응률(ORR) 79%, 완전반응률(CR) 58%를 기록해 기존 약제 대비 높은 항암 효과를 보였다. 무진행 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은 30개월 수준이다.

/이청하 기자

삼립
KBO리그 개막일 맞춰
신제품·띠부씰 선봬

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을 통해 베이커리 제품 출시에 나선다.

삼립은 지난해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던 KBO리그와 올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오는 20일 KBO리그 개막일에 맞춰 9개 구단과 협업한 다양한 신제품과 띠부씰을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